

제9회 한·중 세미나 개최 결과보고

□ 행사 개요

- 일 시 : '15. 9. 8.(화) 09:00~17:50 / * 행사 기간 9.7. ~ 9.10. (3박 4일)
- ※ '15. 9. 9.(수) 현장방문 : 산둥동방해양과학기술주식회사, 장유포도주 박물관 등
- 장 소 : 중국 산둥성 연태시 동방해양호텔 국제회의실
- 참석자 : 150명(한국 12명, 중국 주제발표 및 토론자 8명, 참관자 130명)
- 주 제 : 인터넷 시대의 기회와 도전 : 소셜거버넌스와 보건서비스
- 주 최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 중국 칭화대학 계속교육학원

□ 세미나 결과

- 주요 내용(9.8.화)

주 제	주요 내용
초연결망시대 지방거버넌스	[중국] 초연결망시대 농촌 전자상거래와 농촌 거버넌스 개선 - 초연결망시대 농촌거버넌스 및 산업발전을 위해 인터넷 사고방식을 보유한 농촌 실무형 간부 발탁 및 육성 필요 (장이펑 연태대학 경제관리학원 교수) [한국] 초연결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한국의 IoT 추진현황과 지방거버넌스 - 세계는 초연결성을 미래 국가경쟁의 승리 전략으로 인식, 국가적 자원을 집중하고 있어 초연결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ICT 개발의 대대적 투자 필요 (손연기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원장)
인터넷시대의 공공보건 서비스 개선	[중국] 인터넷의 중국의료영역에 대한 응용 : 원격의료와 '인터넷의료' 의 발전 - 향후 인터넷의료의 급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제공된 의료정보의 의료상 안전문제 및 법률적 책임문제 해결을 위한 규정 필요 (자오야후이 국가위생계획위원회 의료자원처 처장) [한국] 인터넷시대의 공공보건서비스 개선 - 한국은 병원 간 진료정보 교류 통합플랫폼 개발을 통해 신종감염병 확산 방지 및 중복 의료비 절감 등 공공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도모 (김석일 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인터넷시대의 한중 협력 추진	[중국] 인터넷시대 중·한 협력 - 현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교류 활발, 향후 인터넷 전자상거래 분야의 협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천정 칭화대학 소프트웨어학원 교수) [한국] 인터넷시대 한·중 협력 - 한국은 교육, 건강, 저출산, 고용 등 사회적 문제해결에 ICT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협력 시 더 큰 효과 창출 기대 (홍창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국지역본부 부본부장)

□ 총평 및 분위기

- (총평) ‘인터넷시대 기회와 도전 : 소셜거버넌스와 보건서비스’ 관련 주제로 양국 참석자 모두 열띤 분위기속에서 발표 및 토론, 주제선정과 내용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실질적이었다는 평가
- (1세션) 초연결망시대의 지방거버넌스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한국측은 국가적인 차원을 중국측은 지방정부 차원(농촌)의 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
- (2세션) 인터넷시대의 공공보건서비스 개선과 관련하여 양국은 공통적으로 ICT 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 의료정보 보안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
 - 특히,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의료수가 결정, 의료인 간 건강보험 급여분배 등의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제언
- (3세션) 인터넷시대의 한중 협력 추진과 관련하여 한국측은 전자상거래, e-무역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경제무역 협력 방안을, 중국측은 현재 한중 양국의 교류협력 현황을 다방면에서 살펴보는 한편 인터넷 시대 양국 협력의 일환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의 연계 언급

* 중국의 육상실크로드 경제벨트(一帶)와 21세기 해양실크로드(一路) 개발 전략

〈특이 사항〉

- 작년부터 칭화대학 계속교육학원과 교육기금회·사회과학대도 함께 참여, 범위를 확대 운영하고 금년 세미나에는 중국 저명 인사*가 다수 참가함으로써 세미나의 중국 내 위상 대폭 제고

* 꾸빙린 칭화대학 전 총장(정치협상위원회 상무위원), 라오쯔허 중국과학협회 상무위원, 양바오펑 하얼빈대 의과대학 학장, 양려 연태시 부시장 등

□ **제1세션 : 초연결망시대 지방거버넌스**

○ **초연결망시대, 농촌 전자상거래와 농촌 거버넌스 개선**

(장이평 연태대학 경제관리학원 교수)

- 초연결망시대 농촌 거버넌스 개선은 농촌의 산업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지방정부는 인터넷 시대에 지역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보화 기술을 보유한 인재 선발 요구
- 농촌에서는 지역별 비교우위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산업 우대정책을 통해 지역특산품을 초연결망과 연계하는 한편 해당 상품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상품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도모

○ **초연결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한국의 IoT 추진현황과 지방거버넌스**

(손연기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원장)

- 세계는 초연결성을 미래 국가경쟁 승리전략으로 인식, 초연결을 ICT 산업발전 및 국가혁신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
- 미래 초연결사회 대응을 위해 행정정보시스템 및 서비스의 무선 기반화 전환이 요구되며, ICT 신기술(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개발에 대대적 투자와 육성정책 마련 필요

주요 논점 및 제언

- 초연결망시대 지방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정부와 민간기업, 개인간의 상호 신뢰관계 구축이며, 한국의 정보화마을 구축 및 성공사례는 중국의 농촌거버넌스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임

(왕여우창 칭화대학 공공관리학원 교수)

- 지방거버넌스는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주민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인터넷시대에 IT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 창출 및 활용이 가능토록 정부차원의 지원 필요

(김영미 상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제2세션 : 인터넷시대의 공공보건서비스 개선

- 인터넷의 중국 의료영역에 대한 응용 : 원격의료와 인터넷의료 발전
(자오야후이 국가위생계획위원회 의료자원처 처장)
 - 중국 중앙정부는 의료시설이 낙후된 농촌지역에 원격의료 진료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음
 - 원격의료 서비스의 성공여부는 원격의료의 범위 규정 및 관련 법률 개정, 의료보험 적용을 위한 적절한 의료보험 수가 산정, 개인 의료 정보 보호 등의 문제 해결이 관건임
- 인터넷시대 공공보건서비스 개선 (김석일 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 한국은 전국 3,532개 공공보건 기관만을 대상으로 보건기관의 업무를 통합 운영토록 공공보건 정보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취약한 의료 서비스로 환자의 선택을 받지 못함에 따라 공공의료 개선 필요
 - 정부는 병원 간 진료정보 교류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자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신종감염병 확산 방지 및 중복진료 억제를 통한 의료비 절감을 꾀하고 있는데 개인의료정보 보호 방안 마련 시급

주요 논점 및 제언

- 현재 중국에는 많은 환자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지 않고 SNS상에서 본인의 건강이나 질병에 대해 질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SNS에서는 잘못된 건강정보가 제공될 수 있으므로 정부차원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위험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함
(청평 칭화대학 공공건강연구센터 교수)
- 원격의료 정착을 위한 선결과제로 의료수가 결정, 의료인 간 건강보험 급여 분배, 원격의료 서비스 품질 관리 및 의료장비 관리기준 마련 문제 등이 있으며, 원격医료를 통한 산업적 효과 창출을 원한다면 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되어야 함
(송태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빅데이터연구센터 센터장)

□ 제3세션 : 인터넷시대의 한·중 협력 추진

○ 인터넷시대 중·한 협력 (친정 칭화대학 소프트웨어학원 교수)

- 한·중 수교 17년간 양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특히 최근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이 구축되고 있음
- 향후, 정부는 교육 개방, 해양 공동개발과 이용, 국민안전과 환경 분야 협력 도모, 기업은 기술양도와 보호, 산업협력 등 다방면으로 교류 확대 가능

○ 인터넷시대 한·중 협력 (홍창표 KOTRA 중국지역본부 부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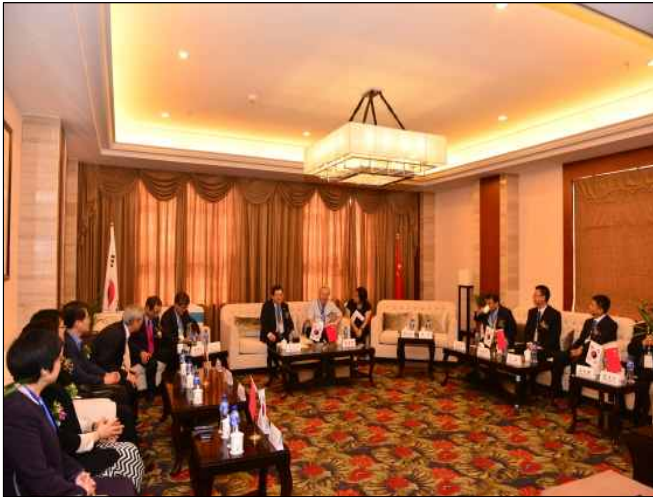
- 중국 경제가 '중고속 성장기'에 진입함에 따라 성장패러다임 전환 및 산업구조 조정을 도모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인터넷플러스* 추진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모든 산업에 IT 융합 추진
- 인터넷시대 한·중 협력 가능분야는 금융, 통신, 온라인 전자상거래, e-무역 해외직구, 게임산업 등 문화콘텐츠 분야, 휴대폰 기반 지식 서비스 분야, 스마트시티 구축 등이 있음

주요 논점 및 제안

- 한·중 양국이 초연결망시대 IoT 연결을 위한 하드웨어 개발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상호 협력한다면 미래에 정보통신 강국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초연결망시대 개인정보보안 및 스미싱 문제는 양국의 공동 협력이 필요한 분야임
(이정용 연태대학 경제관리학원 객원교수)
- 인터넷시대 도래 후, 한국이 앞선 기술과 자본으로 중국에 투자했던 산업투자 방식이 현재는 양국 간 상호투자 방식으로 변화했으며, 향후 양국 기업이 공동 협력하여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과 한국의 집약적인 R&D를 활용한다면 세계시장에서 인터넷 및 모바일 분야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가능
(최필수 세종대 중국통상학과 교수)

붙임1

한·중 국제세미나 사진



청화대학 귀빈상견례



개 회 식



기념 촬영



세 미 나



세 미 나



세 미 나

□ 중국신문망

第九届中国国际论坛在烟台举办

来源: 中国新闻网 | 2015-09-09 15:02 | 作者: 焦东

中新社烟台9月9日电 (焦东)9月8日, [第九届](#)中韩国际论坛在山东烟台召开, 来自清华大学、韩国安全行政部等120多名专家学者就“互联网+”等话题进行研讨。

是届研讨会上, [中韩两国](#)专家学者针对“互联网+如何服务于地方治理”、“互联网时代如何服务于人民健康”、“互联网时代如何开展中韩合作”等主题进行了发言与讨论。其中, 如何通过“互联网+”改善社会治理、服务民众健康等话题成为讨论热点。

清华大学副秘书长李家强称, 这是一场关注中韩两国、加强地方治理、服务国计民生的论坛。专家学者们的观点将对中韩两国政府部门应对互联网时代的机遇与挑战、提升地方治理水平、服务民众健康等产生积极影响。

据悉, 中韩国际论坛是清华大学与韩国安全行政部合作, 为推动东北亚经济的繁荣稳定与协调发展, 促进中韩双边友好关系而共同举办的活动, 旨在搭建中韩两国政府部门、学术界交流平台, 促进中韩两国之间的社会和经济合作。

清华大学原校长、中科院院士顾秉林称, 此次论坛将进一步发掘烟台与韩国间的发展潜力, 促进烟台与韩国在贸易、文化等领域的交流。

烟台市委副书记杨丽称, 此次论坛为烟台“互联网+”产业的纵深发展以及对外开放提供了学习机会, 为烟台与韩国间的深化合作提供了新的契机。正在建设的中韩(烟台)产业园通过“两国双园”合作模式, 以中韩自贸区产业合作示范区、东北亚综合[国际物流](#)枢纽、“一带一路”战略合作平台、韩国元素突出的智慧型宜居新区为定位, 建设中韩两国合作旗舰项目。

烟台与韩国一衣带水, 烟台在中韩两国交往中一直扮演着“桥头堡”的角色。目前韩国已成为烟台第一大贸易伙伴、第一大投资来源国和第一大海外游客来源地。今年前7个月烟台市对韩国进出口额65亿多美元。(完)

第九届中韩国际论坛在烟台举办

2015年09月09日14:16 来源：中国新闻网 手机看新闻 字号 + -

原标题：第九届中韩国际论坛在烟台举办

中新社烟台9月9日电（焦东）9月8日，第九届中韩国际论坛在山东烟台召开，来自清华大学、韩国安全行政部等120多名专家学者就“互联网+”等话题进行研讨。

是届研讨会上，中韩两国专家学者针对“互联网+如何服务于地方治理”、“互联网时代如何服务于人民健康”、“互联网时代如何开展中韩合作”等主题进行了发言与讨论。其中，如何通过“互联网+”改善社会治理、服务民众健康等话题成为讨论热点。

清华大学副秘书长李家强称，这是一场关注中韩两国、加强地方治理、服务国计民生的论坛。专家学者们的观点将对中韩两国政府部门应对互联网时代的机遇与挑战、提升地方治理水平、服务民众健康等产生积极影响。

据悉，中韩国际论坛是清华大学与韩国安全行政部合作，为推动东北亚经济的繁荣稳定与协调发展，促进中韩双边友好关系而共同举办的活动，旨在搭建中韩两国政府部门、学术界交流平台，促进中韩两国之间的社会和经济合作。

清华大学原校长、中科院院士顾秉林称，此次论坛将进一步发掘烟台与韩国间的发展潜力，促进烟台与韩国在贸易、文化等领域的交流。

烟台市副市长杨丽称，此次论坛为烟台“互联网+”产业的纵深发展以及对外开放提供了学习机会，为烟台与韩国间的深化合作提供了新的契机。正在建设的中韩（烟台）产业园通过“两国双园”合作模式，以中韩自贸区产业合作示范区、东北亚综合国际物流枢纽、“一带一路”战略合作平台、韩国元素突出的智慧型宜居新区为定位，建设中韩两国合作旗舰项目。

烟台与韩国一衣带水，烟台在中韩两国交往中一直扮演着“桥头堡”的角色。目前韩国已成为烟台第一大贸易伙伴、第一大投资来源国和第一大海外游客来源地。今年前7个月烟台市对韩国进出口额65亿多美元。（完）

第九届中韩国际论坛在烟台举办

2015年09月09日 14:16

来源：中国新闻网

0人参与

0评论



原标题：第九届中韩国际论坛在烟台举办

原标题：第九届中韩国际论坛在烟台举办

中新社烟台9月9日电（焦东）9月8日，第九届中韩国际论坛在山东烟台召开，来自清华大学、韩国安全行政部等120多名专家学者就“互联网+”等话题进行研讨。

是届研讨会上，中韩两国专家学者针对“互联网+如何服务于地方治理”、“互联网时代如何服务于人民健康”、“互联网时代如何开展中韩合作”等主题进行了发言与讨论。其中，如何通过“互联网+”改善社会治理、服务民众健康等话题成为讨论热点。

清华大学副秘书长李家强称，这是一场关注中韩两国、加强地方治理、服务国计民生的论坛。专家学者的观点将对中韩两国政府部门应对互联网时代的机遇与挑战、提升地方治理水平、服务民众健康等产生积极影响。

据悉，中韩国际论坛是清华大学与韩国安全行政部合作，为推动东北亚经济的繁荣稳定与协调发展，促进中韩双边友好关系而共同举办的活动，旨在搭建中韩两国政府部门、学术界交流平台，促进中韩两国之间的社会和经济合作。

第九届中韩国际论坛在烟开幕

http://bd3g.jiaodong.net/?l=3&ref=www_iphone&order=10&dict=22&tj=www_normal_10_0_10_title&cltj=cloud_title&src=http%3A%2F%2Fwww.jiaodong.net%2Fav%2Fsystem%2F2015%2F09%2F08%2F012868748.shtml